

Gary Meadors 박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세션 4a,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2 부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GM4의 두 번째 부분,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뜻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타깝게도 길이 때문에 나눠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노트에서 슬라이드 번호 23, 성경에서 지혜를 정의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따라온 개요에 따르면 5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이건 4B 강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4A입니다. 이건 GM4의 4B이고, 슬라이드와 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았고, 우리는 이미 7분, 마지막 강의의 70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모읍시다.

저는 우리의 패턴이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 전과 후에 기도하는 것이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토크쇼를 듣는 동안 신에게 도움을 구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트가 여러분이 자료를 보고, 멈추어 텍스트를 읽고, 우리가 진행하면서 자료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학습자여야 합니다. 좋아요, 성경에서 지혜를 정의하는 23번째 슬라이드로 가보죠. 좋아요, 지혜에 대한 히브리어 용어는 *hokmah* 이고 , 구약성경에서 꽤 자주 등장합니다.

칠십인역 용어는 소피아인데,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여성형 단어인 소피는 지혜라는 단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칠십인역이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일반적으로 호크마를 소피아 로 번역합니다 . 그 이유는 그 용법이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라는 단어의 번역과 문맥적 의미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보통 기술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트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는 기술이든, 무언가를 이해하는 기술이든,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기술이든 말입니다. 기술은 항상 이것의 핵심에 있습니다. 번역에서 때로는 기술로, 때로는 지혜로 번역되더라도요. 그리고 이 강의를 위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 것보다 구절을 조금 더 읽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는 1901년 American Standard Version을 읽었는데, 여전히 King Jimmy 유형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혀가 꼬이는 경우가 있어서 English Standard Version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ESV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New Revised Standard의 번역 또는 렌디션, 또는 업데이트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번역은 아니지만, 업데이트된 방식으로 렌디션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 용법은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 능력의 문제를 포괄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아마 당신은 이미 이 내용을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저는 문맥은 읽지 않고, 구절만 읽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능숙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ESV에서 능숙한이라는 단어는 이미 성경 버전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호크마를 의미하는 단어 이고,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능숙함의 영으로 채운 모든 능숙한 자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흥미로운 표현이군요, 그렇죠? 기술의 영입니다 . 성령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량과 기능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가 강화한 것처럼, 그들이 제 사제직을 위해 그를 봉헌하기 위한 심부름, 의복을 만드는 이런 숙련된 사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계약했고, 많은 경우 이스라엘 내부에서, 아마도 이 시점에서, 하지만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이, 기술이 사용된 다른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다른 도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그 건축에 사용했고, 그들은 성전을 짓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다룰 수 없는 또 다른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능숙합니다. 28. 31:3을 보세요, 출애굽기 31:3. 그리고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 능력과 지성, 지식과 모든 장인 정신을 채웠습니다.

그 구절을 따라가면서 Chokmah라는 단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4절, 예술적인 디자인을 고안하고, 금, 은, 놋으로 작업하고, 돌을 깎아 고정하고, 나무를 조각하고, 모든 공예를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나는 그와 함께 단 지파의 하미사팍 의 아들 오헬리아를 임명하였노라.

그리고 나는 모든 유능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었으니, 그들이 모두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능력이라는 개념은, 이 모든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혜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는다.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면 다양할 겁니다. 때로는 기술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능력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지혜가 기술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상 2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서, 몇 가지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 대상 22:15. 다시 들르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많은 일꾼, 석공, 석공, 목수, 그리고 모든 종류의 장인들이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숙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크마 , 지혜, 그리고 일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 계속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기술이 있습니다.

요나가 배에 있었을 때의 구절이 있는데, 그 배의 선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술이 뛰어나고 폭풍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매우 기술적입니다.

따라서 번역에서 기술이라는 단어는 종종 지혜라는 단어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별력 주제에서 지혜는 경전을 연구하고, 세계관과 가치관을 수용하고, 결정을 내리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시작해 봅시다.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이해력이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33. 실례합니다. 제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여기서 제가 아주 가까이서 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파라오는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여 이집트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이 기근과 곡식 부족을 보고 있을 때였고, 그는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기근이 닥쳐도 굶주리지 않도록 사업과 경영에 능숙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를 이집트 땅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읽고 싶은지 봅시다. 33과 39. 나는 그걸 다 읽을 생각이 없습니다.

파라오는 그 땅에 감독관을 임명하고, 생산물의 1/10을 가져가고,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지혜로서의 기술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욥기 12장 2절, 1절.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은 백성이고, 지혜는 여러분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해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이해력이 어떻게 평행을 이루는지 주목하세요. 하지만 지혜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지식의 기술이 당신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ESV에서 지혜의 번역으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기 위해 다른 버전의 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그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념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평행이 말했듯이, 나는 당신만큼 이해력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와 당신의 지적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12절을 봅시다, 욥기 2절, 12절. 지혜는 노인과 함께 있고 이해는 낮의 길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동의어적 병렬성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지혜와 이해는 동등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한 단어를 제공하고 다음 구절은 다른 단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이것을 볼 것입니다. 지혜는 노인과 함께 있고 이해는 긴 날들에 있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노인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많은 면에서 시간과 경험의 지혜와 지식의 습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제쳐두는 것은 나쁜 생각이고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경험과 관련된 이해입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 교육의 다른 부분과 관련된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21에서,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에게 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 눈에 슬기롭다.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말은 병행어입니다.

자기 눈에는 지혜롭고, 슬기롭다. 다시 말해, 그들은 능숙하다. 이런 종류의 구절에서, 나는 그들이 아마도 악에 능숙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들은 조종에 능숙합니다. 모든 컬트 지도자들은 능숙합니다. 그들은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들을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능숙하다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야 지혜롭다는 단어가 오해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혜, 총명함, 이해력의 이 문제는 많은 경우에 평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삶에 능숙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능숙하며, 경전을 조사하는 데 능숙하여 변화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인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세계관, 가치 복합체를 갖게 됩니다.

이제 텍스트는 기술로 번역됩니다. 다른 번역은 다양성을 제공하지만, 이제 번역을 비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번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번역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당신에게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로 번역되고 다른 번역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그것을 다룰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기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능숙한 삶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하는 사람을 찾고 싶다면, 답은 지혜는 능숙한 삶입니다.

즉, 나는 삶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능숙하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나는 신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혜라는 전체 개념의 뿌리이자 기초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농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혜라는 단어를 일종의 영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제 아버지, 제가 이것을 당신에게 예시로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차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가 아는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 마쳤을 때, 아빠는 떠났어요. 그는 내게 말했어요, 아들이, 그는 현명한 사람이야. 그가 하는 말을 들어봐.

아빠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했어. 진짜로 그게 아빠가 말한 거야. 아빠도 아빠 말에 동의했어.

따라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현명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들이 좋은 소리를 낸다는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조언과 결정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된 마음, 세계관, 가치관과 상관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hook, loss, skill을 표현하는 텍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엑소더스, 저는 이걸 당신께 읽어드리지 않을 겁니다. 엑소더스 35:26, 짜는 기술.

이것은 아마도 성막을 짓는 것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는 옷과 가죽과 모든 건축을 하도록 획득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은 다시 가르치는 능력 또는 기술입니다.

이제, 좋은 선생님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왜 그럴까요? 그는 당신이 경전을 이해하도록 능숙하게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6장, 성소를 짓는 기술. 목수는 나무를 가진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건축하는 기술이 있고, 두 번 측정하고, 한 번만 자르는 기술이 있습니다. 속담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역기, 원자재와 건설에 대한 기술. 저는 가끔 월포드 같은 노동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현명합니다. 그들은 그 길에서 특정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술이 그들에게 그런 종류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2장, 일하는 기술 또는 직업을 위한 기술.

당신은 사업에 현명할지도 몰라요. 즉, 당신은 사업에 능숙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전도서 10장, 도끼를 다루는 기술. 고대 세계에서, 솔직히 말해서, 초기 미국에서 숲을 개간하고 파괴했을 때, 그것은 꽤 중요했어요.

이 사람들이 5피트 너비의 나무를 도끼로 다루는 데 능숙하다는 건 놀랍습니다. 에스겔 28장, 사업에 능숙함. 솔로몬은 통치자로서 지혜롭다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능숙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그에게 왔을 때, 그의 지혜가 나왔고, 진짜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고, 그것은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였지만, 그 상황을 처리하고 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경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정말 면밀히 조사해 본다면, 지혜는 *sui generis*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유래한다는 뜻의 문구입니다.

지혜는 스스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학습에서 나옵니다. 경험에서 나오고,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에 능숙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신에게 순종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능숙한 학습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데 능숙합니다. 잠언 1~9장인 My Son 시를 읽고 솔로몬이 아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기를 바랐는지 주목하세요. 잠언은 실제로 능숙하고 주변 환경에서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현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기술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좋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는 삶, 성경, 직업에서 이성의 선을 연결하여 그 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좋아요, 슬라이드 25. 지혜에 대한 고전적 텍스트입니다. 여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잠언에 이걸 적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있지만, 마음속으로 알죠, 잠언 9:10, 어딘가, 10, 9:10인 것 같아요. 항상 알아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기록하신 분을 아는 것이 이해입니다. 누구나 전반부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후반부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 시의 평행법에서처럼 후반부는 전반부를 정의하고, 기록하신 분에 대한 지식은 이해입니다. 저는 두려움이 지식과 동일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며, 지혜가 이해와 동일하다는 것을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불순종이 방정식에 진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아는 방식으로 신을 존경하는 깊은 수준의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거룩하신 분의 지식은 이해입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이해입니다. 지혜는 어둠 속의 총이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집 지하실에 있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오래된 나무 계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만큼 주변광이 충분하기 때문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4살쯤 된 이 어린 소녀는 계단 위에 있는데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빠, 내가 뛰어내리면 잡아줄래?"라고 말해요. 이제 그녀는 어디로 뛰어내려요? 어둠 속으로요. 그녀는 "아빠, 잡아줄래?"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아, 그러지 마"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너를 잡을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뛰어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그녀를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사용합니다. 뛰어들 믿음이 있나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무엇으로 뛰어드는 믿음인가요? 어둠 속으로.

그리고 그 그림은 그 지점에서 무너지는데, 왜냐하면 믿음은 결코 어둠 속으로 뛰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빛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 그림을 성경적으로 만들려면, 아버지는 어린 소녀가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불을 켜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의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날 잡을 거예요.

이제 지혜는 이해입니다. 시리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탕 바 광고가 있었습니다.

캔디 바는 Almond Joy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Almond Joy였습니다. 코코넛, 초콜릿 코팅, 아몬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주 좋아요. 좋아요. 아몬드 조이 캔디 바.

TV에서 그들은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탕 바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태그라인은 이거였습니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맛있어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글쎄요, 저는 그것을 지혜와 믿음의 예시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믿음과 지혜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맛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 어린 소녀가 어두운 지하실로 뛰어든 것처럼요.

그녀가 볼 수 없는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성경은 빛을 켵니다. 빛을 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형언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경험 등의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무작위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심리적으로 다소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은 지식입니다. 지혜는 이해입니다. 그것은 신에게 복종하는 기술입니다.

나는 평행법의 주석을 언급했고, 그것을 당신에게 설명했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에 대한 복종의 태도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알 것이며, 오직 그분만을 섬길 것입니다.

두려움은 실패의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두려움과 섬김은 실제로 성경에서 듀엣이 됩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은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 직접 보세요. 이 단어들에 대한 성경 연구를 직접 해보세요. 매우,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두려움, 지혜, 이 모든 게 서로 얽혀 있죠. 좋아요, 이제 계속할 준비가 됐어요. 지혜는 능숙한 삶이에요.

그러니 지혜는 당신에게 말이 되는 일을 하거나, 당신에게 말한 연장자에게 말이 되는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혜는 당신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웰빙을 하는 장로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더 많고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별로 기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지혜는 당신에게 말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무엇이 합리적인지 아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적절한지, 그리고 내가 인식하고 삶에 적용할 때 내 가치관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삶의 지혜, 능숙한 삶의 사업에서 틀렸을 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실용주의자입니다. 실용주의자는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성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사 결정이 아닙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특별히 숙련되어 있다면, 당신에게 말이 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이 얻기를 바라는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이 되는 것이 그 변형된 세상을 통해 처리되었다는 사실 측면에서 당신이 그들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현명한 결정은 당신이 성경적 세계관 체계에서 결정으로 이동하는 이성의 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결코 우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궁금했는지 몰라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가치 체계에서 결정으로 이동하는 이성의 선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기 전에 대학에서 잠깐 가르쳤을 때 학생들이 제 사무실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사무실로 들어왔고, 저는 복도에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복도에서, 당신은 감히 그들 사이를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시다시피, 당신은 그들을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제 책상 맞은편에 앉았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첫 질문이 뭔지 알아요? 왜요? 그리고 그들은 저를 보며, 멍청한 거야? 우리를 못 봤어? 우리가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못 봤어? 서로에게 노래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싶어하는 걸 못 봤어? 그걸 못 봤어? 왜 우리에게 왜냐고 묻는 거야?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글썄, 제 질문은 똑같아. 왜 결혼하고 싶어? 그리고 그들의 다음 대답은 이거라는 걸 알잖아: 우리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항상 서로 함께 있고 싶을 뿐입니다. 내 다음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왜? 왜? 그 대답은 설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니까요.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합니다. 마치 세상을 정말 정직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당신에게 왜, 왜, 왜라고 묻는 아이처럼요.

시간이 지나면 너무 지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 질문 중 몇 개는 대답도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 체계에서 그들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성적 노선이 있다면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령이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당신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와 세계관에서 매우 강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다메섹 도로로 데려가서 바울 아,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네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너는 더 나은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올바른 버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기독교인들, 심지어 지도자들조차도 제가 여러 번 본 것처럼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알 만큼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사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체계를 자기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리더들을 보았고, 우리는 그들을 프리마돈나라고 부릅니다 .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들은 모든 주목의 중심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는 적절한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대통령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학교, 이건 질병이야. 대통령이 들어와서 모든 걸 자기에게 맞게 바꿔. 자기 비전이라고 부를 거야.

하지만 교육에서 비전은 교수진과 학교의 역사에 의해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형성됩니다. 당신은 사과 수레를 뒤집어 엮지 않습니다. 당신은 들어와서 배우고 지원합니다.

약간의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은 당신만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능숙한 삶에 대한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갑자기 떠오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과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작업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세 번째 요점은 성경이 당신의 질문과 결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지혜와 기술입니다. 당신은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장할 만한 특별한 텍스트가 없는 경우, 이제 세계관과 가치를 적용하는 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증거 본문이 없다면, 성경을 찾으러 가지 마세요. 당신이 그것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성경에 있는 것과 같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암시적이며, 창조적인 구성입니다. 여전히 답을 해야 하고, 여전히 암시적 및 구성적 수준을 통해 성경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삶을 적절하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강의가 끝날 때 Gary Friesen의 작품을 평가할 예정이지만,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지금 당장 진술을 하고 싶습니다.

프리센은 Decision Making and the Will of God를 썼을 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Dallas Seminary에서 쓴 논문이었고, 그는 미국의 케이스워 운동을 정말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매우, 매우 주관적인 운동이었고, 완전히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인기가 있었고, 그는 그들을 평가하는 데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고, 그것에는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성경 대학에서 가르친 윤리 수업의 한 섹션에서 그의 책을 텍스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특정 학교에서 침례교도들의 주관주의에 대한 폭탄 터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할 뻔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제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Gary Friesen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게리 프라이슨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글썄요, 당신과 프라이슨의 견해는 비슷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건 당신이 제 견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항상 유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ary Friesen과 저는 결정과 분별의 처리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Friesen의 지혜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원본 출판물의 199 페이지에서 인용한 내용인데, 제 생각에 그의 가장 좋은 책입니다. 그는 25주년을 다시 했지만, 첫 번째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비도덕적인 결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말해,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는 결정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 편의주의에 근거하여 말합니다.

와. 이제 주의를 끌었군요. 그의 책을 보면, 그가 그것을 조금 풀어낼 겁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이 지혜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그것을 풀어내지 않습니다. 그는 윤리 이론이나 철학적 범주가 풀어내는 방식으로 그것을 풀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지혜의 개념에 대한 평범한 풀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떠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그것은 좋은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에 대한 생각은 다른 행성에 있습니다. 저는 지혜에 대한 제 생각이 성경에서 지혜의 개념에 대해 가르치는 것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 능숙함, 삶, 그리고 직접적인 가르침, 적용된 가르침,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방법.

Chokmah. 그런데, 그것은 적당한 히브리어인 Chokmah와 함께 C를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H가 단단한 H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hokmah는 편의성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합니다. 편의성은 무언가를 증명할 이성적 근거가 없다는 당신의 개인적 지혜로 돌아갑니다.

그냥 생각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구나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영적이라는 용어를 영적 편의주의라는 진술에서 오용하는 것은 성경적 진술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영적이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있습니다. 영성은 사람이 영적일 때 4번만 나타납니다.

당신은 영적 음식과 영적 바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형용사입니다. 사실, 영적이라는 단어는 영적 편의주의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영적일까요? 글썄요, 저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구절에 넣을 때, 그것은 그가 실제로 평가하는 패러다임만큼이나 주관적입니다. 나중에 더 말하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Chokmah는 편의주의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합니다.

영적인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Brazen의 지혜 개념은 부족합니다. 지혜는 더 많은 성경적 훈련과 이성적 노선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그가 제 작업을 보았을 때, 제 생각엔 그가 말한 게 피상적인 시선이었던 것 같은데, 그는 제가 그저 그에게 동의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지혜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저는 지혜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범위는 아니었어요.

그 경기장에서 또 다른 기지가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그 일을 할 당시에 그의 작업에서 한 일을 정말 감사히 여기지만, 현명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파헤칠 것입니다. 좋아요.

지혜에 대한 몇 가지 엄선된 독서와 일부 참고문헌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매우 매우 얇지만, 성경적 지혜를 살펴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문헌을 넣으려면 20페이지가 필요할 겁니다. 거대한 도메인입니다.

지혜, 성경의 문학, 그리고 성경의 지혜, 그것이 지혜서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매우 방대합니다. 그 다음,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결론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가 816년에 말한 것입니다. 증거를 묶고, 제자들 사이에 율법을 봉인하십시오.

거기에 집중하세요. 선지자에게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사야 씨, 사막으로 나가서 기도해서 신이 제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면, 이사야는 해군 수사국의 NCIS 프로그램에 나오는 킵스와 비슷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사야는 율법과 증거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막과 당신의 헌신적인 삶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것이고, 당신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제공하는 가치와 세계관과 가치에 깊이 몰두해야 하며 그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8장 19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할 때, 친숙한 영을 가진 자들을 찾으라.

그게 다른 점술 영역이야. 그리고 지저귀고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에게. 나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몇 번 들었어.

사람들은 산 자를 위해 그들의 신을 찾지 않겠는가? 죽은 자를 찾아야 할까? 그리고 물론,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과 증거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들에게는 빛이 없고 아침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는 목소리, 제가 신의 목소리라고 믿는 목소리, 이런 목소리는 결코 신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물론, 그들은 어기지 않습니다. 신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잖아요. 적어도 셀렉은 말했죠. 당신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당신의 패러다임은 틀렸어요.

미안합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출발하여 변화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세계관과 가치관이 생기고, 당신은 그것을 삶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학습하고, 수정하고, 더 잘 알고,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작동하도록 창조하신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성경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인식하는 개념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세계관과 가치관의 문제였고, 율법과 증거에서 생명으로의 문제였습니다.

잠언서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구약성경에 대한 이 두 부분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차에 있고 항상 따라야 할 다음 강의는 강의 5입니다. 이제 강의 4는 A와 B입니다. 강의 5, 신약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다음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 슬라이드를 꺼내고, 노트를 꺼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논의해 볼게요.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